

'20.9.10일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제1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모 두 말 씀

2020. 9. 1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 병 두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비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디지털금융 시대”의 바람직한 금융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금융의 디지털化”에 발맞추어

금융산업을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 오픈뱅킹 시행 등

디지털 금융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등

혁신적인 시도를 장려하기 위한

규제개혁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핀테크 산업의 저변이 빠르게 확대^①되고,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化가 촉진^{②③}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① 핀테크 기업 수 : ('13년)94개 → ('19년)345개

② 금융샌드박스 지정 사업 110건 중 기존 금융회사 사업이 44건(40%)
(핀테크 기업 56건(51%), 기존 금융사 44건(40%), IT기업 등 기타 10건(9.1%))

③ 금융회사 108개 중 71개(65.7%)가 디지털 전환을 활발히 추진 중
→ 동 71개사는 총 146건의 디지털 전환사업 추진 계획 중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추진 현황」, '19.5월 금감원)

II. “디지털금융 시대” 도래와 금융환경 변화

“금융의 디지털化”는 전세계적으로도
숨가쁘게 진행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금융에 IT기술을 접목하는 단계를 넘어,
“GAFA”, “BATH”로 불리는 대형 IT 기업들이
막강한 플랫폼과 축적된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 GAFA : Goolge(구글), Amazon(아마존), Facebook(페이스북), Apple(애플)
- * BATH : Baidu(바이두), Alibaba(알리바바), Tencent(텐센트), Hwawei(화웨이)

※ 주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사례

- Amazon Lending : 전자상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소액대출 제공
- Facebook Libra : 송금 · 결제서비스에 활용가능한 암호화폐 추진 중
- Alipay · WechatPay : 온라인 고객 등 대상으로 결제서비스 제공
(중국 전체 모바일 결제시장(42.8조위안)의 약 90%이상 차지)

이러한 변화로
금융 · 비금융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던
기존 산업 생태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주요국들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경쟁질서와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 주요국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 논의 사례

• (영국) 「Unlocking digital Competition」 (英 재무부)

- 독점을 방지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전담기관 설립 등 제안
- i)경쟁행위 규칙 ii)데이터개방·공유 기준 마련 등 논의

•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안정성 강화조치 (인민은행)

- 빅테크사의 전자화폐 등 가상환잔액에 대해 지급준비 요구
- 빅테크사가 중앙청산소를 통해 지급결제 업무를 하도록 청산의무 부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의 디지털化”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에서 예금·송금·대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쇼핑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금융사와 제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Ⅲ. “디지털금융 시대”의 도전과 과제

금융의 “디지털化”는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 활용, 온라인 판매채널 제공 등으로
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그러나 한편,

빠른 “디지털化”에 따른 산업환경의 변화는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 ①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금융규제로는
더 이상 “디지털금융 시대”에 걸맞는 혁신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② 막대한 고객기반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의 진입으로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가속화되면서
“금융의 플랫폼 종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③ 제조·판매의 분리에 따라 책임소재가 모호해지고,
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등
금융이용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④ 자동화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비금융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IV.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 방향

이러한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해
정책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야만
“디지털금융 시대”에
우리 금융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궁극적으로
“금융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실질적 대안이 제시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첫째, 디지털시대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해외 거대 플랫폼기업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해
디지털 금융혁신의 발목을 잡는
퇴행적 규제 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어 과감히 개선하고,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② 둘째, 시장 참여자간 건전한 경쟁질서를 구축해야 합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 금융 사업자 간
바람직한 협업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principle)과 규율방식(rule)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 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③ 셋째, 소비자가 안전하게 “디지털 금융”의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제조와 판매의 분리 등 산업 환경 변화가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규율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비금융 부문간 정보 유통이 빠르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보 보호, 금융 보안 등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④ 넷째, 금융안정 관점에서도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금융시장 쏠림현상, 비금융부문으로부터의 리스크 전이경로 등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디지털 부문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습니다.

⑤ 끝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화”에 따른 빠른 발전과 변화가
기존 산업과 우리사회 구성원에 미치는 영향도 짚어보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는지, 적절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V. 마무리 말씀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은
주인공 조셉 쿠퍼의 비장미 넘치는 대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혁신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르지 못한 “디지털금융 시대”에
우리 앞에 어떤 위험이 놓여있을지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정부와 시장참여자, 관련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끈질기게 금융혁신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금융이 디지털 시대에 한단계 도약하는
탄탄한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디지털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